

여수·화순 전략공천→경선...11명 경선 불참...8곳 사실상 후보 확정

새정치연합 전남 기초단체장 오라가락 공천 후폭풍

“공정경선이 개혁” “도로 민주당” 공방 이틀간 진통 安·金 부실한 리더십도 한몫...일부 국회의원 입김도

■ 새정치민주연합 전남기초단체장 경선후보

선거구	성명	연령	대표경력	
목포	이상열	63	제17대 국회의원	
	배용태	59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영규	57	여수시의회 의장	
여수	주철현	55	변호사	
	김동재	56	경영인	
	김도서	52	전남도의원	
순천	허석	5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안재현	54	순천대학교총장	
	김재우	55	전남도의회 의장	
광양	이정문	61	광양시의회 의장	
	김현옥	71	한국폴리텍대학 전임교수	
	강준석	63	국가보훈처 순천보훈지청장	
담양	최형식	60	담양군수	
	장성수	65	장성군수	
	박인환	65	전라남도의회 의장	
구례	서기동	66	구례군수	
	박병중	61	고흥군수	
	구중곤	56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화순	김성인	57	5·18재단 감사	
	이명훈	66	장흥군수	
	강진원	56	강진군수	
완도	신우철	62	해안수산과학원장	
	김신	52	4·5대 완도군의회 의원	
	박철환	56	해남군수	
해남	윤광국	56	한국감정원호남지역본부장	
	김희수	60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집행위원	
	이동진	70	진도군수	
영암	전동평	54	제 4·5·6·7·대 전남도의원	
	김재원	58	전남도청총합민원실장	
	김철수	58	무안군수	
무안	김호산	51	토골토골 무안향토고구마(주)	
	정기훈	61	영광군수	
	안병호	68	함평군수	
함평	안병호	68	함평군수	
	신안	박우량	60	신안군수
	전준호	55	나주축산업협동조합장	
나주	강인규	59	정당인	
	하승환	62	변호사	
	보성	이용부	61	남부대학교수
곡성	정중해	67	보성군수	
	유근기	51	전남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작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은 민주계와 안철수계의 ‘개화 쟁기’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의 리더십도 난장판 공천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밤 8시부터 13일 아침까지, 또 이날 오후 재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전남 기초단체장 경선후보를 선정하면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계는 “지난 11일 전남도당 집행위가 결정한 경선후보는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준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안철수계는 “당시 집행위 회의가 민주계만 참석한 상태에서 열려 ‘날치기’라고 맞선 것이다.

특히 세가 약한 안철수계는 “개혁공천을 주장해 놓고 집행위 결정대로 간다면 ‘도로 민주당’으로 전락한다”며 “하자 있는 후보에 대한 공천 배제(오프) 등으로 개혁공천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계는 “공정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 것이 개혁”이라며 반발했다.

회의 결과는 전남도당이 단수 추천했던 여수와 화순의 경우 경선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여수=지난 9일 도당의 1차 공천관리위 심사에서는 김영규·주철현 후보 간 경선으로 결정됐으나 11일 최종 집행위 회의에서는 주철현 후보 단수 추천으로 결정됐다. 여수의 한 국회의원과 안철수계 측에서 강하게 밀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13일 새벽 최고위 회의에서 주철현·김동재 후보 간 경선으로 바뀌었다. 안철수계 후보끼리 경선을 부친 것이다. 김동재 후보가 도당의 심사턱을 넘지 못하고 제외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고 김성근 의원(여수갑)이 당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 오후 최고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김동재·김영규·주철현 후보 간 경선으로 확정됐다. 김영규 후보는 민주계로 분류된다.

◇화순=도당의 1차 회의에서는 화순·나주를 지역구로 둔 배기운 의원의 입장이 관철돼 무공천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



30~31일 사전투표 하세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 오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정리하고 있다. 사전투표란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들은 오는 30~31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력을 갖춘 전직 군수인 임호경·전형준 후보를 밀어주는 결정이란 비판이 지역 정계에 퍼졌다. 때문에 최고위 회의에서는 경선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이어 열린 도당 집행위 최종 회의에서는 구중곤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구 후보는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인물. 정세균계 인사들이 힘을 써서 애초 전략공천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따라서 단수 추천에도 정세균계의 지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 회의에

서는 구중곤·김성인 후보 간 경선으로 최종 결정됐다. 안철수계 인사인 김 후보와 경선을 치르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나주=도당의 공천관리위는 21개 시군에 국민 여론조사 100% 경선 방식을 적용 했지만 나주시장 후보 경선만 유일하게 국민여론조사 50%, 관리당원 투표 50% 방식을 채택했다.

배 의원은 “소외당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역할을 주는 게 도리”라며 경선방식 배경을 설명했지만

대다수 경선 후보들은 관리당원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배 의원이 ‘개인적 공천’을 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점을 감안해 중앙당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전주준·김대동·홍석태 후보는 “경선이 특정 세력에 의해 기획, 진행되고 있다”며 경선 불참 선언과 함께 전 후보로 단일화를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라가락 공천, 혼탁 부채질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벌써 386건 적발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 무공천 발표와 번복에 이어, 당내 공천 과정에서 돌연 공천 후보를 바꾸거나 전략공천을 하는 등 오라가락한 행보로 일관하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공식후보자 등록일(15일)을 코앞에 두고도 이 같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부 후보들이 무리하게 조직을 동원하다 보니 선거법 위반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광주시·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98건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중 12건은 검찰 등에 고발했다. 전남에서도 288건 적발, 28건이 고발 조처됐다.

적발 건수는 지난 5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고발 비율은 과거에 비해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늦은 공천에 불안해진 후보자들이 도를 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도 늘어난 전남의 경우, 지난 5회 지방선거에서 7건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는 13건으로 증가했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목포시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5일 자신의 집에서 목포시장 당내경선 후보자의 홍보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115명에게 보낸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또 도지사 당내경선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인 613명에게 발송한 한 신문사 기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3~4월께 모두 15차례에 걸쳐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참석자 400여명에게 74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여수시장 예비후보 선거관계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산악회에 찬조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광양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D씨를, 구례군 기초의회 모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에게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E씨를 각각 고발했다.

한편 구례군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3명에게 1인당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상당하는 63만원씩 총 18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라가락기자 kroh@kwangju.co.kr

새정치 이윤석 의원 수석대변인 사퇴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이 수석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후회도 미련도 없다”며 “항상 언론인 여러분들과 마음을 함께 하겠다. 그동안 고맙다”라며 짧은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의 수석 대변인직 사퇴는 지난 12일 의원 총회에서 전남지역 지방선거 후보 경선 확정지연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에게 “당을 떠나라”라며 퇴진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12일 밤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윤석 의원의 의총 발언을 놓고 ‘징계’ 요구가 계속되던 등 격양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2일 최고위에서 전남지역 후보 경선을 인준, 13일야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으며 15일야 후보가 확정될 것 같다”며 “의총 발언은 도당위원장이서 할 말을 했을 뿐이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금환
http://www.joytour.kr
(한글영수증 발행 가능)

꽃보다 누나 따라 잡기 발칸반도/스페인, 포르투갈

꽃피 터키 일주 9일 출발일 5/24/6/21 2,590,000~
ALL포함

서유럽 5개국 10일 출발일 6/5 3,290,000~

이스탄불,스페인,포르투갈 9일 출발일 5/24 2,890,000~

이스탄불, 발칸 9일 출발일 6/14/6/28 3,19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W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90유로), 상급차차

여름방학 무안출발 ← 다낭 전세기 (VN항공)총6회
7/30,8/03,8/07,8/11,8/15,8/19

관광 다낭,호이안,후에 **준특급** 999,000~
특급 1,099,000~

휴양 다낭/호이안 (호랑투어),노티노옴션 **특급** 1,290,000~
초특급 1,499,000~

*불포함사항 : 여권비,개인경비,유류할증료(130,000원)/기사,가이드(성인40\$)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아시아나항공으로 떠나는 북경 태향산
ALL포함 북경 태향산 5일 1,050,000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5/17,5/18, 6/10, 6/12, 6/14, 6/16
*불포함 사항 : 여권비,개인경비,국내수송
가족단위 8명이상 단독행사 가능 (별장 1동씩 드립니다),주말(목,금출발은 요일인상됩니다)

카멜리아 **일본 큐슈 구중산 유후다케 등산 3일 149,000~**
출발일: 5/17,5/18, 6/10, 6/12, 6/14, 6/16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 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399,000 출발일: 5/17,5/18, 6/10, 6/12, 6/14, 6/16
*불포함 사항 : 여권비,개인경비,국내수송

항공 **일본고급 료칸 및 특급호텔숙박!!**
큐슈 3박4일 599,000~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불포함 사항 : 국내수송, 유류세, 기사&가이드

무안에서 출발하는 (상해/대만) 무안-계림 힐링투어!! 4/9~6/4, 총 17회
매주 수, 토 출발

추석 - 연휴 무안 → 상해 - 장가계 !!!

통격 9/6(토) 단회 **상해,주자강 장가계/천문산 5일 1,490,000~**

추석 - 연휴 무안 → 대만!!! 전세기

통격 9/6(토) 단회 **ALL 포함 대만,아류,화련 1,370,000**

끝없이 펼쳐지는 산수 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계림!!

캐주얼 **계림/양삭 4일 599,000~**

클래식 **계림/양삭 4일 949,000~**

캐주얼 **계림/양삭 5일 649,000~**

클래식 **계림/양삭 5일 999,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W949,000/4월기준), 기사&가이드, 중국단체비(W35,000)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기사&가이드(10,000),차비,유류할증료(W94,0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10,000), 현지직원관광, 자유도시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내포함 장금(한국기준)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국내여행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기사&가이드(10,000),차비,유류할증료(W94,000)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10,000), 현지직원관광, 자유도시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내포함 장금(한국기준)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 공동주최: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여행비용 1만원, 국내여행 5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지역 * 인기 요점은 여행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 예약시 계약서(수수료)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견학여행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항에 따라 다름

조이투어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